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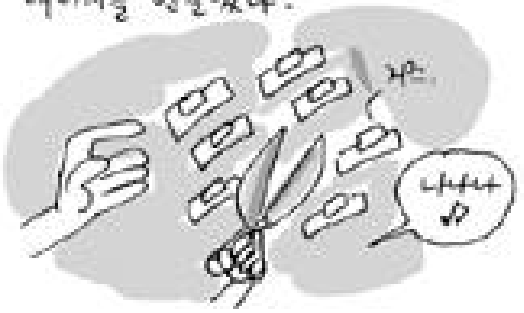
얼딜슨의 일회용밴드

글그림 : 김민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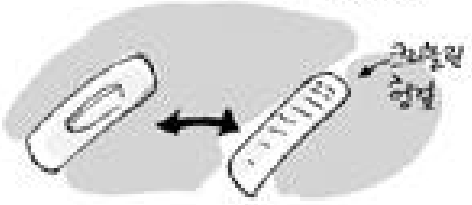
딜슨은 수차례의 외과 치료를 테이프와 커즈를 이용하여 작은 조각을 만들어 아내의 손에 붙여주었다.

그 이후에 딜슨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당시 딜슨은 '존슨 앤드 존슨'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반창고를 사용하는데 능숙했다. 그는 작은 조각의 외과용 테이프에 커즈를 붙여 여러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외과용 테이프의 끈적끈적한 부분을 오랜시간 끝에 크리놀린이란 화학으로 붙여 오래 보관 할수 있도록 했다.



결과는 대 성공이었다!! 아내도 무척 만족해 했다.

뿐만아니라 딜슨의 발명품 반창고는 '밴드에이드'라는 이름으로 상품화 되어 전세계적으로 팔려나가는 행운도 가져온것이었다.